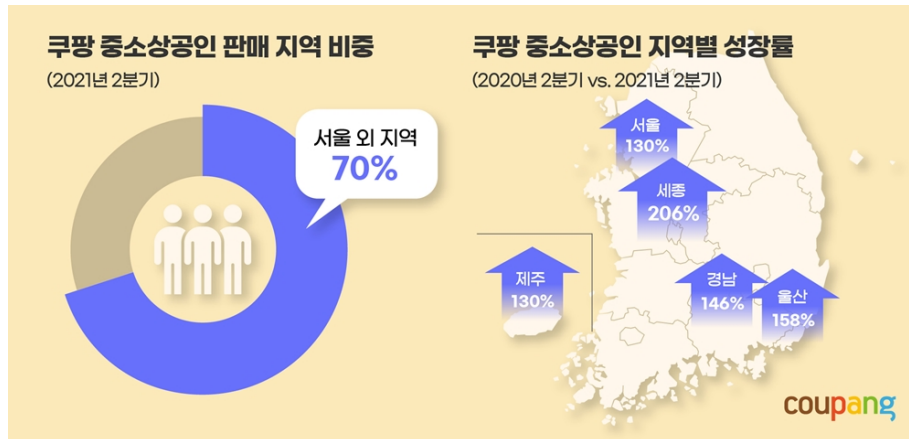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 중소기업인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2021. 9. 7.



- 올해 2분기 쿠팡 중소기업인 판매 70%가량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
- 세종, 울산, 경남, 제주 지역 중소기업인 성장률 서울보다 높아 .세종시 206.3% 성장해 '전국 1위'
- 올해에만 전국 소상공인 위해 4000억원 지원금 조성해 지역투자과 소상공인 상생 활동 지속적으로 펼칠 것

2021. 9. 7 – 쿠팡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끊임없는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인의 성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쿠팡은 올해 2분기에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의 판매 중 70%가량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에서 중소기업인 제품이 10만점 판매된다면, 이중 7만점이 지역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발생된다는 의미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쿠팡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인 중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인은 전년동기 대비 129.6% 성장했다. 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와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였다. 2분기 쿠팡과 함께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인은 157.6%,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인은 145.7%,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인은 130.1% 성장하며 서울의 성장세를 뛰어넘었다. 특히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인의 경우 올해 2분기 성장률 206.3%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지역 중소기업인이 쿠팡에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판매 경험 유무와 상관없는 낮은 진입 장벽을 비롯해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규모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 등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매 시스템과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이 바탕이 되었다. 실제 쿠팡은 이들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적응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마케팅 및 행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쿠팡은 중소기업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쿠팡은 정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만 4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지난 3월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한국 경제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쿠팡은 2021년 상반기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전체 직접 투자 자본의 43%를 차지했는데,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데 집중되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고객은 쿠팡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들의 품질 좋은 우수한 제품들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되었고, 중소기업인들은 쿠팡에 대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판매의 기회를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쿠팡에서 도전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투자와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